



### 석우 스님의 조주록 선해 <3>

조주 스님이 남전선원에서 노두(爐頭: 불을 관리하는 소임을 맡을 때이다. 하루는 대중이 모두 모여 채소를 가리고 있었다. 조주 스님은 승당 내에 있다가 “불이야, 불!” 하고 외쳤다. 대중은 순식간에 승당 앞에 모여들었다. 그러자 조주 스님은 승당 문을 닫아버렸다. 대중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있는데, 남전 스님이 창으로 열쇠를 던져 넣으니 조주 스님이 문을 쏙 열었다.

師在南泉作爐頭 大眾普請擇菜 師在堂內 叫救火 救火 大眾一時到僧堂前 師內關閉僧堂門 大眾無對 泉乃拋鎖匙從窗內入堂中 師便開門

가끔 절에서는 모든 대중이 밭으로 나가서 채소를 가꾸거나 뽑는 경우가 있다. 이것을 울력이라고 한다. 이 때에는 조실이나 방장 스님도 예외 없이 함께 일을 한다. 대중이 다 모여 있을 때, 조주 스님은 “불이 나면 그 안에 있는 사람을 어떻게 구하겠느냐”며 선적인 행동으로 대중에게 질문했다. 여기에 대해 아무도 대책을 내놓지 못했는데, 방장으로 있던 남전 스님이 창 안으로 열쇠를 던져 넣었다. 그때서야 조주 스님은 문을 열고 나왔다.

선적인 질문에 대한 해답은 사실 평범한 곳에 있다. 불이 났을 때는 응급할 때이다. 응급하고 어려울 때일수록 자분히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 해결책을 남전 스님은 ‘열쇠’라고 표현했고, 조주 스님도 그에 공감한 것이다.

두 스님이 대중을 모아놓고 왜 이런 쇼를 했을까? 그것은 사람을 효과적으로 일깨우기 위해서였다. 그냥 앉아서 말로 하는 것보다 이렇게 모두 참여해 직접 체험하게 되면 그 깨침은 강렬해진다. 이 외의 선사(禪書)에 나오는 선사들의 선적인 행동과 말은 모두 사람을 효과적으로 또는 강렬하게 깨닫게 하려는 데 목적이 있다.

현대사회는 많은 문제들이 나타나고 있다. 정치·사회·교육·청소년·빈곤 문제 등은 오늘날 큰 화두이다. 그런데 이런 문제를 풀기 위해 사람들은 계속 법을 제정하는 데만 치중하고 있다. 법은 법이 있기 때문에 다른 법을 다시 발생시키는 맹점이 있다. 때문에 법만으로는 사회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가장 좋은 해결책은 사람의 마음을 다스리는 것이다. 사람의 마음이 선(善)하면 법은 많지 않아도 된다. 국가에서 가장 시급하게 해야 할 것은 사람의 마음을 선(善)하게 만드는 정책을 시행하는 것이다. 이것이 오늘날 사회에 만연된 문제를 푸는 열쇠이다.

선사(禪師)는 인간사 모든 문제에 열쇠를 던져주

## 마음이 선하면 법은 불필요하다

는 선지식임이 분명하다. 다만 사람들이 그 열쇠를 사용할 줄 몰라서 문제를 푸는데 시간이 걸릴 뿐이다.

조주 스님이 남전선원의 정루(井樓: 물을 푸는 누각)에 올라가 물을 푸다가 남전 스님이 지나가는 것을 보았다. 조주 스님은 기둥을 끌어안고 다리는 허공에 띄워 흔들면서 소리쳤다.

“살려줘, 살려줘!”  
남전 스님은 정루 사다리를 올라가면서 말했다. “1. 2. 3. 4. 5...”  
조주 스님은 잠시 뒤 남전 스님에 나아가서 인사를 하였다.  
“아까는 노스님께서 도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師在南泉井樓上打水次 見南泉過 便抱柱懸卻脚 云 相救相救 南泉上棚梯云 一二三四五 師少時間 卻去禮射云 適來謝和尚相救

### 말보다 직접 체험하면 깨침은 강렬해진다 위험에 빠진 사람을 구하는 특별함은 ‘안심’

조주 스님은 한 사람이 위험한 상황에 처했을 때 남전 스님이 어떻게 구원할 것인지를 알기 위해 위기상황을 연출했다. 여기에 대한 남전 스님의 대처 방법은 신속하면서도 사람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 주는 방법이었다.

즉, 사람이 위험에 처했을 때는 선사(禪師)라 해도 신속하게 움직여서 그를 구해줘야 한다는 것은 평범한 것이다. 그런데 거기에 한 가지 더 덧붙여 위험에 빠진 사람의 마음을 안심시켜 주는 것을 동시에 하고 있는 것은 특별함이었다. 남전 스님은 정루 사다리를 올라가면서 발이 사다리 하나를 밟을 때마다 입으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하고 외치면서 구원의 손길이 점점 가까이 다가가고 있음을 알려서 위험에 처한 사람을 안심시켰다. 이것이 바로 깨달은 이의 자비행이다. 이는 조주 스님에게 평생 교훈이 됐을 것이다.

삼풍사건이 일어났을 때 단 3명이 무너진 건물 터미에서 살아났다. 모두 불자였다. 그 중에 한 불자는 “암흑 속에 갇혀있으면서 가장 힘들었던 것은 적막에 대한 두려움이었다”고 말했다. 그런데 며칠 후 멀리서 기계 돌아가는 소리와 사람들이 웅성거리는 소리를 들었을 때 비로소 안심이 됐다는

것이다.  
아침마다 수혈생 옆에서 학부모가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하고 염불하는 소리를 들려주면 그 수혈생은 실제 학업에 능률이 오른다. ‘관세음보살’에 무슨 뜻이 있는지, 왜 불러야 하는지 그 이유를 아는 것은 그리 중요하지 않다.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하고 염불하는 것 그 자체가 중생구원의 자비행이다.

남전선원의 동당 스님들과 서당 스님들이 고양이 한 마리를 가지고 서로 자기네 고양이라고 다투고 있었다. 남전 스님이 당내에 들어가서 고양이를 들어 올리고 말했다. “고양이를 들어 올린 뜻을 바로 말하면 고양이를 살릴 것이요, 그렇지 못하면 고양이를 죽일 것이다.”

대중이 여러 말을 했지만 모두 남전의 뜻에 맞지 않았다. 남전 스님은 고양이 목을 베어버렸다. 저녁에 조주 스님이 외출에서 돌아와 귀가 인사를 드리니, 남전 스님이 낮에 있었던 일을 들려주면서 “그대라면 어떻게 고양이를 구하겠는가?” 하고 물었다. 조주 스님은 “질신 한 짝을 머리에 이고 나갔다. 남전 스님은 “그대가 있었더라면 고양이를 구했을텐데...”라고 말했다.

南泉東西兩堂爭貓兒 泉來堂內提起貓兒云 道得即不斬 道不得即斬 卻大衆下語皆不喚泉意 當時即斬卻貓兒了 至晚問師從外歸來問訊云 泉乃舉前語了云 你作麼生救得貓兒 師遂將一隻鞋載頭上 出去 泉云 子若在救得貓兒

이 ‘남전참묘야(南泉斬貓兒)’ 화두는 조금의 티끌도 묻어있지 않은 맑은 것이다. 공연히 여기에 이리니저러니 사족을 달면 점점 더 진흙탕으로 빠져들어가길 뿐이고 정답과는 거리가 멀어진다. 화두는 말로 설명할 수 없고 비유로도 대신 설명할 수 없다. 특히 이 화두는 직접 체험해야만 알 수 있다.

참선은 마음을 꼭 쉬어서 편안한 상태로 해야 한다. 세상에서 더 이상 구할 것이 없는 대부호의 마음이 돼 편안하게 화두를 들어야 한다. 구하려는 욕망으로 가득해 마음이 가난하면 절대 알 수 없다. 부자의 마음으로 넉넉한 상태에서 이 화두를 들고 있으면 일체 망상이 달라붙지 않을 것이다. 선악시비가 떨어져나가고 헤아리려고 해도 더 이상 헤아릴 수 없는 고요한 마음에 들어간다. 그때 문득 이 화두의 답이 드러난다. 뜻이 드러나도 말로 설명할 수 없음을 그때서야 명쾌하게 알게 될 것이다.

■ 무불선원 선원장

### 덕산 스님의 달마록 선해 달마관심론 8

## 삼취와 육바라밀을 밝히다

또 물었다.  
“보살마하살이 삼취정계(三聚淨戒)를 가지고, 또 육바라밀을 행해야 불도를 이룬다 하셨는데, 지금 수행자로 하여금 오직 마음만 관하고 계행을 따지 않게 한다면 어떻게 성불할 수 있겠습니까?”

대답했다. “삼취정계란 바로 삼독심을 제거하는 것이니, 일독(一毒)만 제거해도 한없는 선을 이루게 된다. 취(癡)란 모았다는 뜻인데, 삼독을 제거하면 곧 세 가지 무량한 선만 있게 된다. 그 선이 모두 마음에 모이게 되므로 삼취정계라 한다. 또 육바라밀이란 곧 육근을 맑게 하는 것이니, 인도에서는 바라밀이라 하고 한문으로는 피안(彼岸)에 이룬다는 뜻이다. 육근이 청정해 세상일에 물들지 않으면 곧 번뇌에서 벗어나 피안에 이르게 되므로 육바라밀이라 한다.

#### [원문]

又問曰 菩薩摩訶薩 由持三聚淨戒 行六波羅密 方成佛道 今令學者 唯持觀心 不修戒行 云何成佛 答曰 三聚淨戒者 則除三毒心也 除一毒成無量善 聚者會也 以除能三毒 即有三無量善 普會於心 名三聚淨戒 六波羅密者 即淨六根 胡名波羅密 漢言達彼岸 六根清淨 不染世塵 即是出煩惱 便至彼岸也 故名六波羅密。

#### [해설]

교학자는 “경전에 따라 계를 지니고 육바라밀을 행해야 깨달을 수 있다”고 말하고, 참선수행자는 “마음만 관하면 깨달을 수 있다”고 주장하는 부분을 지적한 부분입니다.  
마음에서 일어나는 욕심, 성내는 마음, 어리석은 마음이 일어나는 것은 사실이 아닌 것을 보고 일으킨 것이니 마음에서 우주를 하나로 보면 경계가 끊어집니다. 내 것, 네 것이 본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욕심이 일어나면 마음에서 이를 놓아야 합니다.

욕심을 누르면 착한 덕이 쌓이게 됩니다. 무언가를 보면 건물생심이라고 마음에 욕심이 일어나잖아요? 그것을 가지지 못할 때 마음에서 온갖 생각이 일어납니다. 그 욕심의 생각을 억제하면 무량한 덕이 쌓이게 됩니다.  
육바라밀은 보시·지계·인욕·선정·정진·지혜바라밀을 말합니다. 바라밀은 “저 언덕에 이른다”는 말입니다. 보시를 행하고 계율을 지키고 인욕도 하고 선정과 지혜를 닦는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마음을 어디에 두고 행하는가의 문제입니다.



동성 스님 작

보시는 베푸는 뜻이지만 보시바라밀은 대상이 누군가가 중요합니다. 욕심 있는 세상을 차안이라고 하고 욕심이 끊긴 세상을 피안이라고 합니다. 저 언덕이라고 표현합니다.

욕심이 끊어졌다는 말은 나와 너의 경계가 모두 끊어진 것입니다. 우주를 하나의 마음으로 보고 행해야만 보시바라밀이 됩니다.

육안의 눈으로 본다면 분별을 하지만, 마음에서 보면 세상 모든 것은 물질이 아닌 마음으로 돼 있습니다. 마음에서 본다면 우주와 나와 내가 없는 대상이 하나입니다. 무언가를 베풀 때 우주를 상대로 하는 것이 보시바라밀입니다.

지계바라밀도 마찬가지로입니다. 계율도 우주를 상대로 보면 우리는 모두 한 몸입니다.

반야나 지혜 차원에서 우주가 한 몸이라고 생각

하면 마음대로 살생하고 죽일 수가 없잖아요? 무언가를 줄 때도 아낌없이 줄 수 있겠죠? 부처님은 그런 마음을 쓰는 존재입니다. 하나를 마음에 두고 살아가려면 사실 계율도 지킬 것도 없습니다.

이렇게 마음을 쓸 때 진정한 바라밀이 됩니다. 육바라밀은 모두 하나의 마음을 두고 행해야 하고, 그래야 부처님과 같은 열반의 길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계율을 지키고 행을 하는 것도 모두 마음이 하는 것입니다. 하나의 마음도 드러만 알고 행한다면, 무언가를 한다는 생각을 일으키는 것도 번뇌입니다. 대상이 끊어졌기 때문에 생각을 일으킬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구태여 지키려고 애를 쓰지 않아도 됩니다.

하나로 보고 눈을 떠야지만 확실하게 뛰어넘을 수가 있습니다.

■ 청주 혜은사 주지

천기비밀 庚寅年 百超律歷學堂

천국시점에서 절찬리 판매중!!

화제의 신간

새롭게 다시 쓴 한국 최초의 신개념 택일지 운세 비법 출간!! 매일매일 운세 보는법 공개...

365일 매일 한장씩 매일운세! 한눈에 훤히 볼 수 있는 래정비법!

4x6배판/칼라제본/436쪽/정가 20,000원  
문고판/칼라제본/436쪽/정가 10,000원

百超律歷學堂 (02) 3667-4446 010-3813-4443

베스트화제작 신간

귀신뽑는 래정비법! 백초귀장술 上·下

찾아온 일진, 시간만 가지고 왜 왔는지 무엇이 탈났는지 어떤 귀신이 붙었는지 어느 조상이 탈이 났는지 들어오는 순간 알 수 있는 특수 조사법!

귀신뽑는 래정비법으로 복잡하지 않고 간단히 알 수 있는 비법공개! 60장짜 일진별로 한눈에 속속 알 수 있게 초사를 확실하게 설명!

① 신국판/양장본/567쪽/정가 120,000원  
② 신국판/양장본/720쪽/정가 120,000원 著者 百超백초스님

입금 계좌 농협 023-02-500940 임현주 신한 010-6413-4443 임현주

비법전수중